충남도, 美서 4억달러 투자 유치… 미래사업 국비 확보 고삐

천안·아산 산단에 생산시설 신설
수출상담회에 도내 기업 20곳 참가
미반영 사업 예산 추가 확보 집중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순방을 통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성과와 2027년도 국비 확보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미국 순방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미국 출장 성과와 2027년도 국비 확보 전략 등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충남도의 경제 영토 확장 방향은 '글로벌 기업은 충남으로, 충남 기업은 세계로' 나아가는 쌍방향 경제 고속도로를 뚫는 것"이라며 이번 순방을 충남의 투자 매력을 알리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길을 넓힌 경제 외교로 평가했다.

이번 순방에서 충남도는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으로부터 총 3억 963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해당 기업들은 천안과 아산 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글로벌 기업들이 충남에 뿌린 투자라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3력혁신과 광속행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수출상담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해 이 중 7개 기업이 해외 바이어들과 총 207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실제 수출 계약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내년 충남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2027 제1회 섬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충남의 '1호 세일즈맨'으로서 홍보와 행사 준비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섬비엔날레는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3조 2632억원을 지키고, 미반영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중부권 첨단 바이오 밸류업, 해상풍력터빈 부품 시험센터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등 핵심 교통망 사업 예산도 지켜내고, 본예산 63억원과 재해대책비 137억원 등 총 200억원을 확보한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제 모델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과 축산환경관리원 신축 등 주요 국책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맞춰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예결위원들과 연쇄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지사는 "외교로 문을 열고 정부안으로 길을 닦았다면 이제 국회에서 충남의 예산을 최종 확정 짓겠다"며 "국회 예산 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첨성대, 中 시안 공원에 설치

경주시는 중국 시안시가 지난달 흥경궁공원 내 국제우호도시 조각공원에 경주의 대표 역사문화유산인 첨성대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형물은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실제 첨성대 높이의 4분의 1 수준인 2.1m 규모로 제작됐다.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축조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로, 신라의 과학기술과 역사문화를 상징한다.

경주시와 시안시는 1994년 11월 18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경제·문화·관광·청소년·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 왔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수원시

환경교육도시 3회 연속 지정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3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참여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7곳과 광역지자체 3곳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2020년 9월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시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2023년 10월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3회 연속 지정 기록을 세웠다. /수원(경기)=김예원 기자 ywon@

김해시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

김해시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차기 유치도시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유치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화포천습지 과학관 안에 센터 사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현재 전남 순천에 있는 센터의 다음 유치도시를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해시는 화포천습지의 보전·생태복원사업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화포천습지 과학관 조성 등을 추진해 왔다. 센터는 2008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2009년 설립된 국제 협력 기구다. 전 세계 4개 람사르지역센터 가운데 하나로, 경남 창원에서 운영되다 2016년 전남 순천으로 옮겼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ASEAN+3 채권시장 포럼 개최

부산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최하는 'ASEAN+3 채권시장 국제포럼'이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BNK부산은행 컨벤션홀 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BNK금융그룹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행사를 주관하고 부산시, 재정경제부, 부산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블루시티 조성'을 주제로 아시아 금융 시장의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경기교육청, 10대 교육 해법 마련

44일간 6116명 만나 의견 청취
지역별 교육 현안·정책 방향 공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대 교육 해법'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에게 들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10대 교육 해법'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일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한 지역별 교육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9월 17일 화성·오산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의정부까지 44일간 31개 시·군을 방문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등 6116명을 만났다.

도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디톡스 ▲체험활동 재개 ▲과밀학급 대응 ▲소규모학교 지원 ▲특수교육과 돌봄교육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생 통학 지원 ▲교복 비리 근절 ▲학부모 지원과 협력 등 10개 과제로 정리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장 임기와 밀리터리 멘토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폰 OFF, RAS ON' 정책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한편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을 확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제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진도개 혈통·생애 이력 한눈에 본다

진도군,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어떤 혈통을 이어받았고, 어디에서 태어나 누구에게 분양됐을까?' 진도개의 혈통과 생애 이력을 전자 정보(디지털)로 확인하는 길이 열린다.

천연기념물 진도개에게 이른바 '전자(디지털) 신분증'이 생기는 셈이다.

진도군은 '2026년 정보통신기술 활용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추진한 '분산형 정보 저장 기술(블록체인) 기반 전통반려견 혈통인증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혈통 정보와 개체별 관리 이력을 연결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도개 양육자는 자신이 기르는 진도개의 출생확인서, 진도개증명서, 혈통증명서, 총 3종의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고, 발급된 전자(디지털)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분산형 정보 저장 기술(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기술(DID)을 적용한 전자(디지털) 증명서 서비스다. 분산형 정보 저장 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해 증명서의 위조와 변조를 막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혈통 인증의 신뢰도를 높였다.

진도개 양육 농가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소유자와 주소 등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반출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 예방접종, 전자칩 관련 예약과 심사 신청도 할 수 있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산림경영특구·투자선도지구 추진

경북 임업인의 날 기념행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경상북도 임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는 2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제1회 경상북도 임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6차 산업 투자 확대와 산림경영특구·산림투자선도지구 추진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숲에서 시작된 오늘, 미래의 숲으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산림소득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과 공무원 등 16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임업인의 날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임업인의 권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1일이다.

도는 지역별 특화 임산물의 생산·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하는 6차 산업 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인 임업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경영특구를 통해 산림경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산림투자선도지구에는 민간 투자를 연계해 산촌의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본격화

경남도, 내년 구역 지정·고시

경남도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구역 지정·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 17일 사천시의 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사업 타당성과 개발 구상, 관련 법령·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했다. 이어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했다.

대상지는 사천시 용현면 일원 약 710만㎡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연구 개발지구, 주거·교육지구, 첨단 산업지구를 배치해 기업과 전문 인력의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 약 67%인 143만 평이 농림지역이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주요 과제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인 사천시가 2027년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진행계획 승인과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경남도는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도 병행한다. 11월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호남 시·도민 상경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